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 농촌진흥청 연찬관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농민, 농민단체대표 등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대풍을 이룬 농민들에게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농업의 뒷받침이 없는 선진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2단계 농정개혁과 통일을 대비한 식량

확보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부에서 농업포기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4-H운동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되어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

이와 함께 기념행사로 농업인 정보이용 경시 대회, 4-H 50주년 경진대회 및 첨단농업기술 전시 등이 다채롭게 열렸으며 농업인의 날이 전국민 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진정 축하를 받아야 할 농업인들의 참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협중앙회 원철희 회장을 비롯 87명에게 훈장 및 표창이 수여되었다.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지난 18일 농촌진흥청은 닭 마렉병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닭 마렉병 발생주의보

마렉병은 전파가 비교적 빠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중병아리 이상에서 간장이나 신장, 비장 등의 장기에 종양을 일으키며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닭에 감염될 경우 25~60% 정도가 죽게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국내에서는 부화장에서 1일령 때 마렉병 백신을 일괄적으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으며 또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큰병아리 때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신을 접종한 닭에서도 발

• 축산업계 소식

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산란을 하고 있는 큰 닭에서도 발병되는 등 발생일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양계농가에서는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발생현황

가. 연도별 마렉병 검색건수(수의과학연구소)

연 도	1995	1996	1997(10월 현재)
검색건수	15	8	47

나. 일령별 마렉병 검색건수('97)

구 분	주 령						계
	5 ~ 9	10 ~ 14	15 ~ 19	20 ~ 30	31 ~ 40	41 ~ 50	
검색건수	2	7	12	17	7	2	47
(%)	4.2	14.9	25.5	36.2	14.9	4.2	(100)

2. 전염경로

- 마렉병에 걸린 닭의 깃털이나 닭비듬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였을 경우 감염된다.
- 그러나 분변이나 눈물, 콧물 등 체액으로는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아 이들을 통한 전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3. 주요증상 및 병변

- 감염되어 발병된 닭은 움직임이 적고 침울하며 점점 쇠약해진다.
- 쇠약해진 닭의 배를 만져보았을 경우 팽만해진 경우가 많다.
- 발병된 닭들은 한쪽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다리를 저는 경우도 있다.
- 눈동자가 하얗게 변할 수도 있다.
- 죽은 닭을 부검해 보면 간장, 신장, 비장 등 내부 장기가 종양으로 인하여 심하게 부어 있거나 국소적으로 종양조직이 관찰되기도 한다.

4. 예방대책

- 부화장에서 1일령 병아리에 백신을 접종하되 제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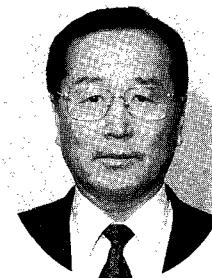
사의 권장사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접종한다.

- 백신을 접종한 닭이더라도 면역이 형성되기 이전(3주령전)에 조기 감염될 경우 발병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양계장에서의 조기감염에 유의한다.
- 본 질병은 주로 계사내의 먼지, 닭비듬, 깃털 등에 의해 전파되므로 오염된 양계장에서는 입추이전에 육추사를 철저히 소독한 후 병아리를 입추시키고 3주령까지는 큰 닭과 완전히 격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문의처 : (0331)292-4295

축산기술연구소

가금연구팀 한국농업과학연구대상 수상



△ 정선부 소장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정선부) 가금연구팀이 지난 1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주최 국제학술발표회에서 제3회 한국농업과학연구대상을 수상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동소의 가금연구팀은 30여년간 국내 가금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특히 가금개량연구, 가금사양기술개발연구, 가금시설환경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이 같은 영예를 차지했다.

수상자는 정선부 소장(가금산업발전분야), 정

일정 박사(가금개량분야), 이상진 박사(가금사 양기술분야), 이덕수 박사(가금시설환경분야)이다.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임원 개선



한국가금학회(회장 김선중)는 지난 28일 축산기술연구소(성환)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학회상 시상을 가졌는데 학술상은 서울대 한재용 교수, 행정분야 공적상은 낙농진흥회 이인형 국장, 봉사분야 공적상은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공로패는 충남대 한성욱 교수와 고려대 지규만 교수, 감사패는 중원농장 배선채 사장과 대한양계협회 김용화 부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임원개선에서는 회장에 김선중(서울대학교) 교수가, 부회장에 박영인(USFGC) 회장, 지규만(고려대학교) 교수, 이규호(강원대학교) 교수, 김재홍(전남대학교) 교수, 하정기(진주대학교) 교수가, 감사에는 김영환(양계연구소) 소장, 김순재(건국대학교) 교수가 각각 선출되었다.

한편 학술발표는 영양 사료·사양 분야와 유전 육종·수의 분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가금질병 대응방안 심포지움 개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김선중)은 지난 10월 31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회 의실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기법에 의한 가금질병 대응방안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전염병 F낭병 바이러스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일본 Gifu대 Hiraik 교수, 살모넬라의 분자생물학적 진단기법과 대책은 미국 미네소타 수의대 Nagaraja KV 교수가 발표하였고 콕시디움증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 미래 전략은 미국 농무성가축 및 가금연구소 Lillehoj H.S 연구관, 국내 유행 뉴캣슬병 바이러스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서울대 수의대 김선중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다.

심포지움에 이어서 동대학 개교 50주년 기념 을 축하하는 간찬회를 가졌다.

대선후보초청 농어촌정책토론회

지난 23일 세계일보 국제연수원에서 15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이희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의 농어촌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세 후보가 농어촌 정책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인 패널리스트들이 후보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책 제시에 있어서 이희창 후보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수입검역 강화를, 김대중 후보는 농촌재해보상과 농어촌 의무교육 실시를, 이인제 후보는 2단계 농어촌 구조사업에 100조를 투자할 것과 원산지 표시 철저를 각각 강조하였다. 세 후보의 공통된 의견은 직불제 실시, 유통구조개선이었다.

(사)기축분뇨자원화협의회

심포지움 개최

(사)기축분뇨자원화협의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6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환경축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심포지움을 가졌다.

4부로 나누어 진행된 주제 발표시간에는 환경축산을 위한 정책방향, 법과제도, 기술개발과 환경축산의 현장이란 주제로 발표하였고, 종합 토론시간에는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국제심포지움 개최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회장 박영일)는 지난 18일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동물유전육종분

야의 최근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동회에서 연구한 유전자 지도의 작성, 게놈(genome)의 조작, 가축의 유전적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육종체계의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발표가 있었다. 양계분야에서는 닭 게놈 프로젝트를 미국인 Hans Cheng이 발표하고 통역은 유병현 박사가, 좌장은 오봉국 교수가 맡았다.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조사료생산용 농기계 확대 보급 후 처리 방안 논의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회장 심상무)는 제9차 이사회에서 정부의 축산분뇨처리 보완대책 및 조사료 생산확충 기본시책이 확정되어 '9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조사료생산용 농기계 확대보급 후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품질등록기준 마련,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운영규정 제정, 품질·보증대상 선정, 보증서 발급, 보증금 예치, 수수료 등 세부운영 계획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동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축산기자재 사업전반에 걸쳐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협회회보 발행

동회는 오는 '98년 1월부터 격월간으로 협회회보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협회회보 발행으로 동회의 정책 및 정보를 모든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어 협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8서울국제식품기술전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내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98서울국제식품기술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에 16회째를 맞이하는 동 전시회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시설현대화 촉진, 해외유명제품과의 비교 전시를 통한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식품 및 식품가공기기의 수출기반 확대 등 식품산업의 발전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전시품목은 식품·식품첨가물, 주류·음료, 식품가공기기, 식품포장기재, 호텔·주방 요식용기기, 기타 식품관련 정보·서비스 등이다. 참가신청 요령은 동사 전시사업처 국내 전시부와 무역센터빌딩 1301호에서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7년 10월 30일부터 '98년 1월 31일까지이다.

문의처 : (02)551-4414

축산기자재 할부 판매 성행

축산기자재 판매시 농가에 계약금을 받고 기계를 인도한 후 잔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기자재업체들이 할부 판매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축산기자재 할부 판매란 축산기자재 업체는 농가에 기계를 인도하고 기계대금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고 할부금융회사는 기계대금을

농가에 할부로 청구하게 되는 형태이다.

할부 기간은 3~6개월이고, 할부이자는 할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개월일때는 0.5%를 적용한다. 기자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기자재 업체들의 판매 방식의 변화로 영업경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유동이 원활하여 많은 업체들이 이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축산기자재 업체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재정상태가 좋아야 하며 기계를 인도받은 농가가 할부액을 갚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들은 할부판매방식 채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단체급식시장 활성화

올 5월부터 학교급식의 외부위탁이 허용되면서 각급 학교들이 잇따라 단체급식을 기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병원, 기업 등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해군함대 등 군부대 10여 곳에 대한 단체급식도 민간기업이 맡고 있다. 단체급식 위탁시장 규모는 올해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의 단체급식 규모를 보면 1만여개 학교로 가정할 때 2조~3조, 병원급식은 연 7천억원, 기업체·기타는 6천여개가 급식을 할 경우 연 2조5천억원이 된다. 단체급식 1인분에 1천5백~3천5백원 사이며 더 고급메뉴는 별도 계약이 가능하다. 종류는 한식, 중식, 일식 등으로 다양하다. 주요 단체급식 메뉴에서 양계산물을 닭가슴살튀김정식, 치킨카레라이스, 닭죽 등이다.